



책의 맛

배곧해솔중학교
도서관 소식지
제9호 2021년 9월

발행처: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 150-23 배곧해솔중학교 도서관 031-8063-1881

진정한 책을 만났을 때는 틀림이 없다. 그것은 사랑에 빠지는 것과도 같다.

"There is no mistaking a real book when one meets it. It is like falling in love."

- 크리스토퍼 몰리

안녕하세요? 배곧해솔중학교 도서관입니다. 9월 소식지의 주제는 '도서관'입니다.

◆ 도서관 이용 안내

9월 도서관 행사 중 '3, 6, 9 뽑기'는 10월 15일까지 연장하여 진행합니다!!

- 이용시간
평일 8:40 ~ 16:40
- 대출 및 반납
3권 30일

◆ 독서의 달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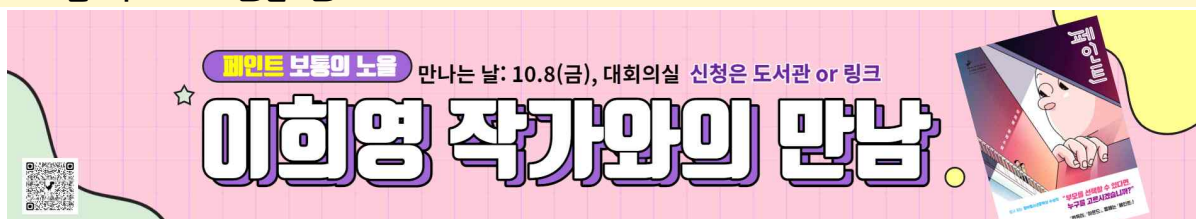
11105 김서윤

독서의 달의 목적은 매년 9월 국민들의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고,
책 읽기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만들었다고 나와있다.

가을은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날씨도 좋아서 밖으로 놀러가기 굉장히 좋은 계절이라서
다른 계절에 비하여 국민들의 독서량이 확 줄어든다고 한다.

그래서 출판업계에서 독서를 권장하는 캠페인을 벌이면서 가을이 독서의 계절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 10월 작가와의 만남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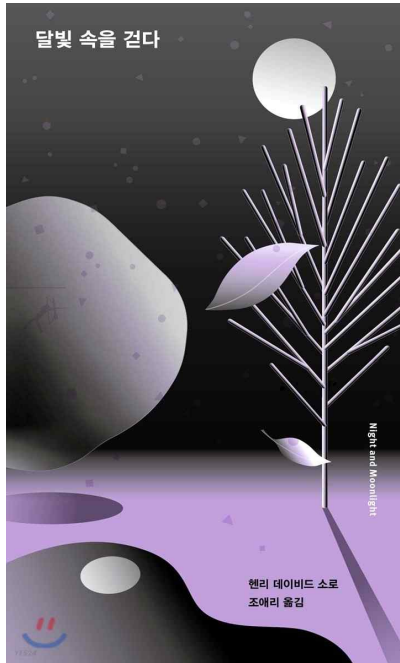


“이희영 작가와의 만남”

1. 일시: 10월 8일(금) 15:40~
2. 장소: 5층 대회의실
3.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jebw5ha8rkSXYX9FKx1s-zG41jgwFIyPhXZtHSqqYze9Lg/viewform?usp=sf_link

◆ 도서 「달빛 속을 걷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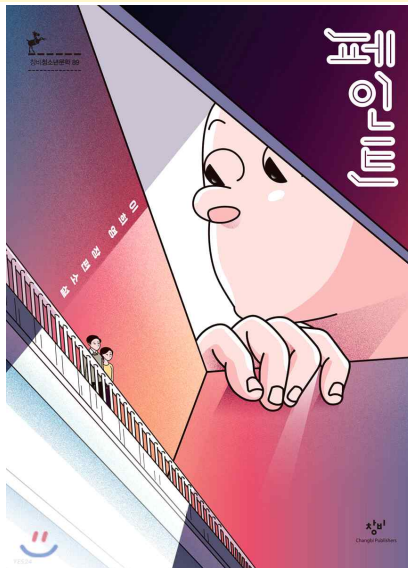
20927 최수하

달빛 속을 걷다-헨리 데이비드 소로

“달빛 속을 걷다”는 “시민 불복종”의 저자로 알려진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산책, 여행을 통해 본 자연에 대해 세세하게 묘사되어있다. 하늘을 유심히 들여다 본지가 얼마나 되었을까. 우리는 달빛, 가을의 나무들, 겨울이라는 계절까지 그저 표면적으로만 바라본다. 그들을 다시 들여다보면 그저 차갑고 무겁게 묘사되는 겨울의 따뜻함을, 떨어진 낙엽의 의미를 깨닫게 되지 않을까?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 이 책은 무심코 지나친 자연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만들어 준다.

“이제야 멋진 항해가 시작됐다!” (소로의 마지막 말)

◆ 도서 「페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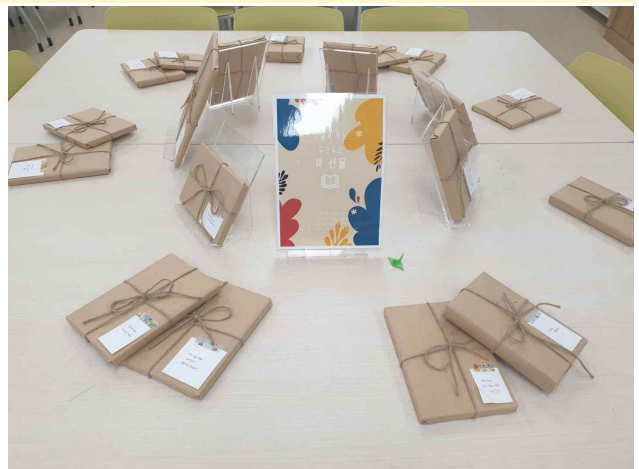


20927 최수하

페인트-이희영

“페인트”는 부모 면접이라는 다소 신선한 주제를 가졌다. 주인공 제누 301은 부모가 없거나 버림받은 아이들을 정부에서 보호하는 NC센터의 아이로 부모를 선택할 수 있지만, 너무 엄격하거나, 예의가 없거나, 정부의 혜택만을 노리는 예비 부모들 때문에 아직도 NC센터를 떠나지 못했다. 제누가 센터에 남을 수 있는 시간은 2년 정도, 과연 제누의 어떤 선택이 최선일까? 이 책은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모와 가족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져준다.

◆ 어떤 도서관 행사가 있었나요? - 나에게 주는 책 선물



◆ 어떤 도서관 행사가 있었나요?
- 3,6,9 뽑기



◆ 어떤 도서관 행사가 있었나요?
- 3,6,9 뽑기



다음 도서관 소식지도 기대해주세요~!